

공대위-추진단,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 해법 없나

“별도 장소 복원·설계 변경 등 대안 놓고 머리 맞대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와 전당 건립주체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먼저 광주의 미래비전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측이 '철거불가'와 철거방안 고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별관 철거 후 별도 장소복원', '별관 철거 후 모형 전시', '전당 설계 변경' 등 별관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청 별관 쟁점=도청 별관은 일제 시대(1920~30) 때 지어진 본관 건물과 잇닿아 있으며, 지난 1975년 4층 콘크리트 건물로 증축됐다. 별관 건물은 지난해말 완료된 문화전당 설계상 철거 대상 건물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월 관련 건물은 상무관, 도청 본관, 도청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등 5개 건물은 보존이 확정돼 있다.

공대위 “광주 항쟁 숨결 남아 있는 현장 ... 보존 필요”

추진단 “별관 허물어야 출입구 확보·설계 개념 살려”

그러나 5월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된 공대위는 별관철거를 반대하며 3개월째 옛도청 부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수만 공대위 상임위원장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항쟁 숨결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도청과 한 덩어리인 본관을 허문 뒤 그 부지를 문화전당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진단은 “별관을 존치할 경우 재설계가 불가피해지는 등 전당조성사업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진 다”며 맞서고 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별관 철거는 이미 시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문제로, 별관을 허물어

야 문화전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확보하고, 열린 공간이라는 건축 설계 개념을 살릴 수 있다”며 철거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 쟁점은 별관 철거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다. 공대위는 상무관, 도청본관, 도청 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등 5개 건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별관 철거에는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추진단은 “지난 2006년 5월 일부 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광주항쟁 보존 공간 활용 방안 제안서'에 별관이 철거대상 건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안서 자체가 작성·제출한 사람이 없는 가짜 문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안은 없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공대위가 당초대로 철거와 보존인장을 굽히지 않는 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당초 양측은 이달 중 별관 철거논란에 대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논의 주제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 날짜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경우 대안이 없지 않다는 게 문화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우선 시급한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위해 별관을 철거한 뒤 나중에 별도 장소에 복원하는 것도 고려 대상의 하나다.

별관을 철거하되 건물의 모형을 제작해 문화전당의 민주평화 교류원이 나 상무관에 전시하는 방법도 대안으



로 거론되고 있다. 또 추진단도 문화전당 설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관을 존치하는 설계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별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양측이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해결점을 찾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론보도로 인한 피해 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7-3000 www.dok.or.kr 인론중재위원회

“별관도 유적지, 철거 말도 안된다”

“설계변경땀 사업 공정 차질 불가피”

정수만 도청 보존 상임위원장



5월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80년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공간이자 민주·인권·평화의 상징물인 옛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이 공간을 철거하는 것은 80년 당시 그곳에서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에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더구나 80년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공간인 별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전당의 출입구로 사용한다는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월 단체들이 문화전당의 건립을 뒤늦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오해다. 5월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도청 별관의 철거를

반대해왔다. 우리의 주장을 문공부를 포함해 아시아 문화전당추진단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장기 농성을 펼칠 수밖에

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측에서는 5월 관련 단체들이 서면을 통해 별관건물의 철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건은 5월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적이 없는 '유령 문서'다.

우선 문화전당 추진팀에서 별관 건물을 본관 건물과 따로 떼내 철거 대상으로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 별관은 사전상으로도 본관과 별도로 떨어진 건물을 의미한

다. 전체가 옛 도청건물인데 따로 별관을 분리해 철거한다는 것은 철거를 위한 논리 일 뿐이다.

역사성을 살려 보존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은 상식이다. 독일 베를린의 빌헬름 교회는 전쟁의 파괴성을 알리기 위해 파괴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은 보존을 통해 명소가 된 곳이다.

별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설계를 변경하면 된다. 이미 문화전당 건물 설계자인 유규승씨는 5월 단체관계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별관 보존이 결정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5월의 정신이 서린 유적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병훈 亞문화도시추진단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전당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은 랜드마크 논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 끝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공식까지 마쳤으며 전당 건립공사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5·18기타타격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도청별관을 보존하자'는 천막시위가 격렬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5월의 정신이 서린 유적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 경찰청본관과 경찰청민원실, 상무관, 5·18민주광장, 분수대 등 대부분의 5·18사적지가 전당 안에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나 참으로 난감한 부분은 이같은 논란이 설명회, 공청회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대국민발표회 등의 과정을 거칠 때는 나오지 않았다가 기공식이 끝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현 시점에서 도청별관 존치를 위해 설계를 바꾼다는 것은 전당건립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도청별관 존치시엔 5·18민주광장과 전당내 아시아민주광장간의 연계 및 소통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이 된다. 때문에 별관

존치시에는 설계개념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고 공간의 연계구조 등으로 인해 건물의 전면 재배치 등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또는 중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현 설계안의 총 설계기간은 18개월, 설계비용은 220억원이 소요됐다. 재설계시 최소 1~2년의 설계기간이 걸린다. 공사시기 및 내용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공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지만 이를 대응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5·18의 가치를 물리적인 공간에만 돌 것이 아니라 5·18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해갈 수 있는 전당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확대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난국을 해소해가는 보다 큰 해법이라고 믿는다.

Large advertisement for 'HONG KONG AUTUMN TEMPTATIONS' featuring a woman in a red dress and various promotional text in Korean and English.